

기독교와 철학

(Keith E. Yandell 지, 이승구 역 / 엠마오 : 서울, 1988)

권병우

머리말

필자는 언젠가 물리학을 전공하는 이웃 유학생을 초빙하여 전도할 기회를 마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을 꺼내기도 전에 그쪽으로부터 전반적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특정적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받고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시도해 보았으나, 시각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서로가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필자에게 성경보다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개론을 읽어 볼 것을 권유했다. 아마 그 학생 교수의 눈에 필자는 물리학과는 달리, 검증되지 않은 원시적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 드는 것이 우둔하게 보인 것 같다.

사실 자연과학을 비롯하여 현대의 인문, 사회과학은 감각경험 그리고 이성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신이나 종교적 체험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주관적, 감정적,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객관적인 설득력조차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 설명,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관념적인 사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 성급한 철학자들은 학문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기독교적 종교 철학자들은 세속화된 인본주의 학문의 도전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학으로서의 체계를 시도하고 있다. 비록 주관적이긴 하지만 종교적 체험을 엄연한 경험의 한 형태로 본다면 연구의 대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념상의 체계 내지는 기독교적 세계관까지 세울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것을 시도한 Keith E. Yandell의 기독교와 철학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적 체험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가?

영적 체험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존재 혹은 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험을 말한다: A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어떤 존재를 체험함으로써 그 앞에서 죄의식을 느낀다: A는 전능한 존재 앞에서 그의 피조물임을 인식한다; A는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존재를 체험함으로써 경외를 느낀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험을 한 사람은, (1)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과, (2) 그것이 신이라는 것, 그리고 (3) 그 경험은 사실이라고 믿는다. 영적 체험의 중요한 점은 그 대상이 신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영적 체험이 경험자에게 사실이라 해서, 이것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신의 존재가 그 자체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영적 체험은 경험자와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존재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감각에 의한 경험과 비슷하나, 전자는 개인적이고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없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 전자는 예측불허의 경험에 지나지 않지만, 후자는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적 체험의

진위성(眞僞性)은 감각 경험의 진위성과는 달리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두 경험의 대상 - 신과 물질적 사물 - 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 자체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적 체험과 감각에 의한 경험은 경험자와 독립적으로 완전하게 구별되는 존재를 각각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대상과 어떤 특별한 관계 - 인식적, 의지적, 감정적, 등등 - 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후자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대상 지향적(intentional)이라 하는데, 이는 대상과 관련하여 경험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상의 존재를 도입해야 하는데, 감각에 의한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사물의 개념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 체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경험의 대상이, 위에서 말했듯이, 경험자와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록 객관적인 증명은 아니더라도 영적 체험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는 한 뒷받침이 된다. 그럼에도 경험의 대상 지향(intentionality)을 순수한 심리적 현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경험의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사막 한가운데서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가 있다고 믿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신을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경험이 경험자 내부에서 일어났다해서 오아시스와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될 것이다.

경험이 참이기 위해서는 경험자가 그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거니와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각 경험의 경우는 다른 경험자가 같은 시공에서 경험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의 반복을 예견함으로써 그 진위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영적 체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경험자에게는 공통된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경험된 체험이 전통교리와 일치할 뿐 아니라 도덕적 성숙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부터 두 경험의 진위성을 판단하는 공통된 기준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어떤 경험의 대상이 상반되는 속성을 가지면 그 경험은 참(眞)이 아니다. 이것

을 근거로 하여 참된 영적 경험을 가려내어, 이를 토대로 일신론적 개념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이는 감각경험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참된 감각경험을 토대로 과학적 개념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일단 체계적인 일신론이 세워지면 반대로, 후자가 영적 체험이 사실이라는 인식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만약, 신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학설 - 예를 들어, 심리학적 “주의(ism)”나 경제학의 “보이지 않는 손” - 을 제시함으로써 일신론의 부적절함과 아울러 신이 존재치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영적 체험에 근거를 두고 내린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영적 체험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영적 체험이 시간과 장소와 문화가 다름에도 일어나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 한다. 그리고 영적 체험의 사실성은 일신론에 대한 이성적 타당성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 증명은 타당한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영적 체험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 철학사에서 증명해 온 이론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신의 증명법에는 (1) 우주론적 (2) 목적론적 (3) 존재론적 (4) 도덕적 증명이 있다.

(1) 우주론적 증명

이 세상이 우연으로 조건지어진 존재들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어떤 것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후자가 우연적인 존재라면, 그것은 조건지어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에 의해서 연유한 것이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건지어지지 않은 필연적인 존재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것이 신이다.

우주론적 증명의 기본 가정은, 1) 이 세상은 우연적인 것으로 되어있다고 보고, 2) 그 배경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3) 조건지어지지 않은 필연적

존재에 대한 설명은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증명은 전통적인 유일신관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배경은 우연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그리고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이론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논리적 추론에 의해서 규명된 신의 존재를, 속성을 고려치 않고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록, 존재와 속성은 다른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물이나 존재를 속성없이 인식한다는 것은 공허하다. 오히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명제를 통해 신에 대한 존재와 개념이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목적론적 증명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은 어떤 목적성을 띤 질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각이 있는 존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반면에, 기계론적 이론은 그와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비록, 두 이론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전자의 이론은 신이 세상을 창조,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가 뜻한 바에 따라 그의 힘과 지식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전통적 일신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다.

(3) 존재론적 증명

여러 가지 변형된 증명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신을 어떤 것도 그 이상 완전하게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것을 논리적 배리법(reductio ad absurdum)으로 증명하는데 다음과 같다: (1) 신이 사고의 대상으로 마음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2) 개념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도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다. (3) 만약, 어떤 존재가 개념과 함께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신보다 더 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어떤 존재도 신보

다 더 완전하게 간주될 수 없다. ⑤ 그러므로 신은 사고의 대상으로 마음에만 존재할 수 없다. ⑥ 그러므로 신은 실제로 존재한다.

증명하는 과정에서 ‘신’이란 단어는 두 종류의 다른 지시물 - 사고의 대상과 실제 - 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증명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개념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을 수 없고, 그렇다해서 결합하여 하나로 된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우기 “완전함”이 실제적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내 손 안의 연필이 신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는 명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4) 도덕적 증명

“지고(至高)의 선”이란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를 한 만큼 행복을 얻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도덕적 명제가 참인 곳에는 지고의 선이 실현되는데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실행한 만큼의 행복을 얻는 기회는 극히 적다. 따라서 균형잡힌 공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지, 전능한 존재가 요청된다. 또한, 사람은 지고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이 요청된다.

이 이론의 결합은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에 비례하여 행복을 얻을 때, 전지전능한 존재가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전지전능한 존재를 고려치 않고도 행복을 즐길 수 있다. 또한 행복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옳은 것을 행한 만큼 행복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과연 어떤 행복을 말하는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덕(德)이 그 보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전부이다. 그렇다면, “지고의 선”은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에 대한 보상의 정당한 분배를 뜻하지 않는다.

신은 표현할 수 있는가?

전통적으로, 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여 왔다. 이유는 신은 피조물과 달리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감각경험의 범위 안에서 서술하는데 그칠 뿐, 그 밖의 영역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어떤 개념에 의해서도 서술이 불가능하고 적용시킬 수 없다”고 본다면, 이는 신의 무한성, 전지전능함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러한 존재와의 신비적인 체험 - 곧 직접적인 접촉 - 에서 오는 경이로움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견해는 타당한가? 한마디로 어떤 개념도 적용시킬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주장은 모순이다.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떤 것을 서술할 수 있다는 의미 - 곧 개념 - 를 가지고 있다면, 반대의 경우도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나 개념이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할 수 없다”는 개념을 포함하여, 어떤 개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설혹, 신의 무한성을 이유로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무한함이 전지전능,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한, 신에 대해 표현할 언어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주장은 신비적인 체험의 성격 때문이다. 이 체험은 신과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직접적인 접촉이란 그 자체가 절대로 오류가 없는 확실한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석이나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직접접촉을 통해 인식되어진 것 - 신의 영상(image) - 과 그 대상은 인식론상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이론에 의거한다면, 영상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은 한 전자는 직접적으로 숙지가 되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숙지가 된다. 다시 말해, 영상은 경험자의 마음에 확실한 것으로 새겨지고, 대상은 영상에 의해 규정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을 단순히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으로 대상의 실질적 존재에 대해 탐구하는 관념론과 같은 맥락을 이루어, 신은 존재하지만 표현할 수 없다는 원래의 주장과 상반된다. 더욱이, 인식의 무오류성은 영상

이 지니고 있는 감지할 만한 속성 - 가령, 색깔이나 모양 - 을 인식하는데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처럼 마음과 무관한 존재요 영적이요 감지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를 인식하는데 오류의 가능성은 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의 한계가 신을 표현하는데 장애를 준다는 견해이다. 모든 개념은 직접적인 감각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초기 개념이거나, 이로부터 논리적으로 파생된 개념에 불과하다면, 신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가진 개념 주에는 - 가령, 형이상학적, 수학적, 윤리학적, 등 - 감각경험의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 있다. 비록, 모든 개념이 감각경험에서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각세계에 있는 대상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신을 표현할 수 없다”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만약, 이 명제가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이끌 것이다: (1)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는 참도 거짓도 아니다. (2) 신에 대한 서술이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 기독교의 신학과 윤리는 인식론상 의미가 없다.

종교교리는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종교는 교리나 신조를 가지고 있다. 철학적으로 말해, 종교적 신조는 인식되어지는 것이며, 이의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의 진리값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어떤 철학자들은 종교적인 주제에 대한 인식은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 믿음이나 미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본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비판하며, 종교적 교리는 이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근본주의(foundationalism)는 모든 지식은 인식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근본적인 명제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의 확신이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심리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명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짓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 - 혹은 반대의 가능성 - 이 있기 때문에, 참

명제와 그것을 참이라고 믿는 믿음은 동일한 것이 될 수 없다. 인식의 확신의 범주 밖에 어떤 명제가 아무리 감각 경험에 의해 참으로 판명되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근본주의자는 기독교 교리가 인식의 확신의 범주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참으로 입증되지 않은 명제들로 구성된 기독교 교리를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기독교 교리는 이들에 의하면 지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근본주의는 그러나 그 자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 “지식은 인식의 확신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근본주의 제일 명제가 인식의 확신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인식의 확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진 명제들이 많다. (3) 모든 사람이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만약, 근본주의의 제일 명제가 타당하다고 가정하면서, 인식의 확신의 범주 안에 있는 명제가 없다고 한다면, 근본주의는 회의주의(skepticism)의 강한 비판에 맞서야 할 것이다.

한편, 회의주의는 상대주의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진리는 사람과 사회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참은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두 세계관이 다르다고 가정할 때 둘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나 개념이 없으면, 둘의 척도를 잴 수가 없으며, 나아가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성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기독교 신학이 맑시즘이나 불교와 같은 세계관과 견주어, 더 좋지도 더 나쁘지도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경쟁하는 두 세계관에 대한 이성적 평가는 과연 불가능한가? 한마디로, 두 진영 간의 비교, 검토, 파악은 가능하다. 이 둘 사이에 논리적, 인식의 관계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둘의 척도를 잴 수가 없는데, 이들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이론 모두를 알아야 하며 이들이 서로 무관하며 또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세상이 물질 혹은 정신 중 어느 것으로 구성되어졌는가에 따라 유물론, 유심론, 이원론, 물질동일론이 있다. 유물론과 유심론은 서로 상반되는데, 이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둘은 참이 될 수 없다.

반면, 물심동일론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참이다. 그렇다면, 유물론과 유심론은, 비록 상반되지만, 인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척도를 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두 세계관이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없다는 의미는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견해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 관한 것이다. 두 세계관이 어떤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하여 같은 표준으로 잴 수 없다고 보아서도 안된다. 결국, 서로 경쟁하는 세계관을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주의자의 주장은 틀리다.

그렇다면, 회의주의자가 우려하고 있는 참된 명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근본주의의 주장 - 근본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명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 을 따르게 되면, 참된 명제는 반드시 인식의 확신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참된 명제가 다 근본주의에 입각해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단순히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명제들을 들 수 있는데, 근본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인식의 확실한 기초없이 세워진 것들로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명제들이다. 이 중에서 받아들여도 무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을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 어떤 명제를 받아들였다 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받아들여진 것 중에는 틀리거나 입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 신의 존재, 윤리적 강령을 포함하는 “문화적으로 생성된 신념”을 보면, 비록 그 정당성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사회에서 역할을 잘 담당하는 반면, 이것과 갈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非) 근본주의 노선을 따라 형성된 신념들이 근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진 것보다 숫적으로 훨씬 더 많다.

경험에 의거한 형체가 비록 근본주의에 의해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비근본주의의 노선 -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파악되고 또 참이라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 그 명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 에 따라 정당성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이 확증주의(verificationism)와 반증주의(falsificationism) 전략인데, 확증주의란 어떤 명제에 대한 확증이 발견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반증주의는 어떤 명제에 인식의 오류가 발견되면 그것을 폐기하고 오류없는 명

제만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보편명제는 연역법과 귀납법에 의해 개별명제로부터 추론되고, 후자는 개별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개별경험으로부터 보편명제까지의 형성과정 속에는 인식의 승인 내지는 확증이 있다. 확증주의는 진리 일치론(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 - 진리는 사실과 믿음의 일치에 불과하다 - 을 수용하는데, 이는 개별경험과 개별명제 사이의 진리에 한정한다. 한편, 개별명제와 보편명제 사이의 진리는 비록 확증주의에 의해 세워졌다 하더라도, 반증을 통하지 않고는 입증될 수 없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보편명제는 개념체계의 중심을 구성하는데, 반증주의는 후자의 일관성을 위해 시도되는 것이다. 반증주의는 그래서 진리일관론(coherence theory of truth) - 어떤 체계의 진위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의 상호 논리적 조화, 부조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 을 수용한다. 결국, 확증주의는 개별명제에 대해서, 반증주의는 보편명제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한다. “신은 존재한다”는 명제는 영적체험을 근거로 한 개별명제인 동시에, 개념체계에 절대로 필요한 보편명제라는 사실을 위의 두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주지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주장은 진리값을 가지는가?

여기서는 도덕적 주장은 이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이론들을 비판하고 도덕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상대주의

도덕은 지식이나 이성적 신념을 주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주장은 문화상대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모든 문화가 옳은 것을 혹은 그른 것을 다 같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따라서 어떤 행동이 그르다고 규정함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도덕판단, 도덕법, 도덕원리를 - 도덕판단은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것으로 이는 도덕법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도덕법은 도덕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진다 - 구분하여 보면, 다른 문화가 같은 도덕 원리를 공유하면서 다른 판단과 법을 적용하는 것을 발견케 된다. 이는 마치 지(知), 미(美), 건강에 대해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부대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도덕 원리는 바로 고유의 가치와 관련하여 세워진 것으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2) 회의주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 예, 감정론(emotivism), 주관론(subjectivism) - 있는데,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어떤 도덕 명제의 진위를 이성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 때, 이성적 판단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것을 선호하는 사회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이것이 곧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파악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그러나 외관상으로 도덕 명제의 진리값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도덕의 인식론적, 형이상학적 의미를 묵과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좀더 그럴듯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회의주의가 원래 가졌던 주장 - 도덕명제를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 을 반복하고, 반대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론들이 있다: 도덕이기설(ethical egoism)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3) 도덕이기주의

이 이론은 개인의 이익만이 고유의 가치가 있고 이것을 장려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주장한다. 개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며 “악”으로 규정한다.

이 이론은 그러나 개인간의 이익 충돌이 생길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지 못한다. 가령, A, B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반된 이익을 가졌다고 가정할 때, A

는 B에게, A의 이익만이 고유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A, B 중 어느 한쪽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할 이유를 자신에게나 B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결정할 근거를 이 이론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비실천 이론에 불과하다. 더우기 이 이론은 도덕적으로 적절한 것들을 도덕적으로 보지 않는다. 도덕 성찰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 이론은 주변의 고통, 불공정과 같은 것들이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중립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것들이 개인의 이익에 맞으면 단순히 좋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한편, B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A의 이익이 되고, B를 위한 A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A의 이익은 본래부터 좋은 것이고, B의 이익은 A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에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AB 사이에 같은 대상에 대한 경쟁이 있게 되면 고유의 가치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

도덕이론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상식이란 곧 공통의 도덕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행동, 신념, 자세, 감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치 감각경험이 과학이론에 관하여 역할을 하듯이, 공통 도덕경험이 도덕이론에 관하여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동도 판단의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좋은(나쁜, 옳은, 그른) 속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것을 토대로, 도덕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1) 모순된 도덕원리를 수용하는 도덕이론은 옳지 않다. (2) 도덕원리는 공통도덕 경험에 의해 발견된 적절한 특징들을 뒷받침해야 한다. (3) 도덕원리는 옳은 (그른, 좋은, 나쁜) 특성에 관한 공통도덕 경험을 확증해야 한다. (4) 비실천적 이론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5) 어떤 도덕이론이 고유의 가치를 한 개인에게 부여하면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의 상태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이론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보면, 도덕이기주의는 도덕이론으로 보기에 결함이 있다.

(4) 공리주의

이 이론은 인간 세상에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가져오도록 시도하는 것이 도덕의 목적으로 보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덕원리(효용원리)로 삼고 이에 준하는 행동을 옳다고 본다. 이 이론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행복의 최대화를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며, 도덕의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없고, 어떤 종교적 입장하고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이론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행복을 분배할 때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는 정의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다. 가령, 어떤 집단에서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의 주모자를 찾는 방법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고문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범인을 빨리 색출하는 것만이 고문을 그치게 한다고 판단하여, 죄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A의 행동은 옳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잘못된 것으로, 행복의 최대화를 위해 죄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거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것이다. 정의와 효용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또 하나의 도덕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다: (6) 어떤 도덕이론이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비슷한 상황 아래에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수용한다면, 이는 불공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틀리다. 공리주의가 (6)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용원리는 공정원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효용원리가 유일한 도덕원리라는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악이 존재한다면 신의 존재는?

전통적으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를 품어왔다.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소위 근심, 고통, 불공정과 같은 악이 있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모순으로 이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 A와 “악이 존재한다”는 명제 B는 모순처럼 보

이지만, 다음의 명제 C가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모순은 해결된다: (C) 신이 허용하는 모든 악은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신은 가지고 있다. A, B, C 명제가 한 조가 되어 논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A, B, C 셋 중 최소한 어느 하나가 필연적으로 틀렸거나, 모순인 것을 보이면 된다. B는 그러나 모순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A, C가 남는데 A의 진위는 C가 모순이나 아니냐에 따라 결정 되므로 다음은 C가 필연적으로 틀렸는가에 대한 찬, 반 논쟁을 열거했다 :

반: C가 참이면, 신의 전지전능함에 결함이 있다. 그러나 신은 그러한 결함이 없으므로 신이 악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찬: 고난을 악으로, 도덕적 성숙을 선으로 본다면, 고난은 도덕적 성숙을 위해 근본적인 요소이다. 이런 성숙은 악의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결국 악없이 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신의 능력이나 지식면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신이 악을 허용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반: 그러나, 죄없는 자가 처벌받고 누우치지 않는 범죄자가 보상을 받는 불공정한 악은 선한 신이 실제로 허용치 않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악은 신이 허용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은 신이 허용하는데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들이 아니다.

찬: 이 주장은 C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나 C가 필연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 주지 못한다.

반: C가 모순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어떤 악은 신이 허용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지 않은 악이 있다. 비록 (1) 신이 그것을 허용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2) 신은 이런 악을 허용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3) (2)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찬: (1)은 참이지만, (1)이 (2)와 (3)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1)은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을 정지한 사람뿐 아니라, 일신론이 사실이라 믿고 그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과도 양립할 수 있다. 만약, 사악한 악이 있어 전지전능한 신이 그것을 허용할 이유나 치유하는 능력을 발견치 못해 ②나 ③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오직 고통만이 고유의 악이요, 오직 기쁨만이 고유의 선으로 보고, 고통과 기쁨은 공존할 수 없다는 쾌락주의(hedonism)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신론은 쾌락주의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틀렸다고 본다.

반: 그럼에도 우리는 신이 악을 허용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주장보다도, 일신론이 악에 대해서 조명하여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C가 참이라는 주장은 공허하다.

찬: 선과 악이라 할 때, 단순히 감정적인 의식상태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성숙을 위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며, 도덕적 인간이 이를 치를 만한 대가를 지불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형상화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어떤 선에 대응하는 악이 없는 선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모순이라면, 악은 선의 논리적으로 필요조건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도 성립한다. 즉, 악이 선의 논리적 필요조건이라면, 선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모든 악이 이와 같이 선과 관계를 맺고 있고, 선의 긍정적 가치가 대응하는 악의 부정적 가치보다 크다면, 전지 전능한 신이 선을 악보다 더 많이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악의 존재가 신의 선택에 어떤 침해로 주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모든 악이 대응하는 선과 논리적 필요조건 관계에 있다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 악의 존재가 신의 존재에 반대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종교와 도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어떤 도덕적 주장에 진리값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가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가치있는 것에 대한 지식은 이성에서 근거할 필요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에 의해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선호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선호를 정당화하는 이유에 불과할 뿐 선호하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데, 가령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떤 선호에 대한 증거는 그것을 가진 이유와 적절한 대상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지, 선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한편, 규정주의(prescriptivism)는 “어떤 행동이 옳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상에 맞고 그 이상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 상반되는 이상이 있을 때, 이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거나 임의적이다. 또 이상적인 판단과 실제적인 판단 사이의 괴리는, 옳다고 판단한 행동과 실제로 행하는 행동 사이에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창조적 자유의 행사만이 유일한 가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창조적 자유의 행사는 그러나 창조적으로 악일 수 있다. 더우기 “창조적”이란 말에 강조를 하다보면 지극히 하찮은 일 - 가령, 한강의 어느 특정 지역에만 낙서하는 일 - 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사랑, 건강, 연민 등 전통적인 가치관은 완전히 독창성이 없고, 도덕적 가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하다. 한편, 자유를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외부의 조건이 없고 어떤 이유도 없어야 한다고 본다면, 그 행동을 하거나 안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찮은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복의 개념을 덧붙이어, “선택하는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자유로운 것이며,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더욱 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유한하다는 가정 아래에서, 각 사람의 이익의 충족을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다. 도덕은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사람들

간의 협동을 유도하여 각 사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의 타산(打算)이 들어 있다. 이 주장의 도덕 원리는 인간 그 자체 보다는, 생존을 고유의 가치로 보고, 행동의 옳고 그름과 의무는 계약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만약 A가 협동하는 척하는 것이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 속에는 이미 기만이 있는 것이며, 계약이 이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각종 도덕이론과 주장들을 살펴 볼 때,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았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도덕이론을 살펴 보자. 일신론은 특징적으로 인간은 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 주장에 의거하여, 기독교적 도덕 원리는 인간의 잠재력을 신의 형상에 따라 성숙시키는 것으로 보고, 인간은 이를 위한 의무가 있으며,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도 이 원리에 의해 평가되어진다고 본다.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이성적이며 도덕적 행동인(moral agent)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선택이나 행동에 대해 자율성을 가졌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결국 인간의 가치는 인간 그 자체에,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렸다.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특징은 또한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사랑(agape)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개인의 이익을 버릴 수 없지만, 이는 신의 형상에 따른 개인의 성숙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본다. 결국, 기독교 윤리는 실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무론적(deontological)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의무는 그러나 신에 대한 복종의 의미 보다는 신을 닮아 간다는 - 가령, 신실, 공정, 은유, 용서, 연민, 등등 -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무는 복종을 위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의 성격을 띠게 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일신론은 -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 기본 의무는 신을 닮는 것이다 - 유일한 도덕적 지위를 인간에게 부여한다. 이로 부터,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 덕과 부덕의 개념이 세워지며, 따라서 이성적인 평가를 가능케 한다. 신의 존재와 개념이, 그리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체계적이고도 이성적인 도덕 이론을 형성해 준다.

종교적 개념체계는 이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

종교적 명제는 순전히 개념상으로 확증되어지는 명제 - 즉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참인 명제 - 나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적인 명제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체계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 참이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명제의 진리값은 단순히 직접적인 경험자에 의해서라기 보다, 종교적 전통으로 인해 세워진 일반화에 의해 결정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도 단순히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주장만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개념체계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개념체계 - 종교적이건, 과학적이건 - 는 우선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근본 명제 및 구성하는 명제들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모순된 명제가 없어야 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추가될 때 더 정확하게 정당화 될 수 있다:

- 1) 조리성이 없는 개념체계는 문제시되고 있는 것의 진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 2) 근본적으로 모순을 포함하는 체계는 틀리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참일 수 없다.
- 3) “어떤 개념체계 T는 참이다”와 T가 참이되는 조건들과 모순이라면 T는 틀리다.
- 4) T의 유일한 이론적 근거가 T가 어떤 문제 P를 해결한다고 할 때, 주어진 T에서도 P가 남아 있다면, T는 폐기되어야 한다.
- 5) T가 감각경험이 결코 참일 수 없다거나 외적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T는 틀리다.
- 6) T의 지칭 범위 내에서도 자료들을 설명할 수 없는 T라면 폐기되어야 한다.
- 7) 만약 T가 잘 확인된 자료 D와 모순관계에 있음에도 T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T는 틀리다.
- 8) 만약 T가 특별한 가설을 필요로 한다면, T는 명백한 면에서 인식론상 결함이 있다.

일신론은 이러한 기준들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신론이 참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다.

평가

Yandell의 기독교와 철학은 인식론, 형이상학, 논리학, 윤리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철학적 주제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뿌리를 내려야 할 터전을 제시하였다. 그는 현대 철학의 주 흐름인 분석철학의 방법론 - 논리적 서술 - 을 이용하여, 강력하고도 정교한 논술로 인본주의에 물든 현대 철학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이론에 대한 세미한 결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 Yandell은 서로 경쟁하는 두 세계관의 척도를 이성적으로 잴 수 없다면, 이들은 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차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한 다른 시각이라고 보았다. 유심론(마음은 오로지 비물질적이다)과 유물론(마음은 오로지 물질적이다)은 한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를 취했지만, 물심동일론(identity theory)이 이 둘 사이에 인식상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표준을 잴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표준으로 잴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성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성적 파악을 통해서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가치관”이 들어있다. “신이 존재한다”는 명제가 기독교 세계관의 근본적 명제가 되어, 이의 부정은 기독교 개념 체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유심론이나 유물론의 근본적 경제에 인식상의 결함이 있다하여, 이들의 개념 체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표준을 잴 수 없다는 것이 이성적 판단에다 가치관이 덧붙여지게 되면, 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시각차에 “척도를 잴 수 없다”는 것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2. 만약, 어떤 행동 A가 옳다면, A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형성한다. 이는 반

대의 경우에도 맞다. 즉, 만약 A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형성하면, A는 옳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Yandell에 의하면, 신을 닮아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특정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기가 쉽지 않다. 또 특정한 행동이 일신론적 도덕원리에 맞게 취해진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같은 원리 아래에 있으면서 갈등관계에 있는 행동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이는 도덕원리와 실제로 응용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것이 맞는다면, Yandell이 규정주의에 대해 비판한 그 비판 - 이상에 의거하여 판단한 행동과 실제로 행한 행동사이의 불일치 - 에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실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발적 의무는 신의 형상을 닮으려는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의지의 약함과 함께 개인의 이익이 신을 닮으려는 의지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3 Yandell은 영적체험과 신비적 체험을 다르게 본 것 같다. 전자는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을 경험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과 신 사이의 밀접한 관계나 신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포함하는 경험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4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은 참된 영적 체험과 기독교 전통으로 확인된 일반적 명제들을 토대로 하여, 과학적 개념체계와 같이 이성적인 개념체계로 세울 수 있다.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과학과 종교는 연구의 대상은 다를 뿐이지 연구하고 체계를 세우는 방법과 목적은 같을 것이다.

그럼에도, 세속적인 인본주의 학자들은 종교적 개념체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엄연히 학(學)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답답할 만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거나 타당치 않다면, 학으로서의 진위를 인정치 않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 세계관이 인정하는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신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특성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사전(辭典)식 정의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쳐왔다. 인본주의에 물든 학자들은, 한편 이것을 물질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환원하여 설명함으로써 나름대로 타당한 이론을 제시하는데 반해, 기독교 학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어떤 도구도 없이, 세속적인 이론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의 입지를 세워 왔다고 인본주의 학자들은 믿고 있다. 마치 상대방이 세운 초가집이 잘못되었다고 허물어 버리지만, 정작 자신은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로 본 것이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내 많은 주제들이 인본주의적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식론과 일반, 자연, 인문, 사회과학을 뒷받침하는 인식론 사이에는 서로 조화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이 학으로서 타당한 이론을 세우기 위해 인본주의 학문에서 통용되는 인식론적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렇다해서 독자적인 인식론을 근거로하여 설명한다면, 인본주의자들을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루는 학자들의 고민(dilemma)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Yandell의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은 참으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